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금촌통일시장서 '농지은행사업' 홍보 나서

[박정호]

맞춤형 농지지원·농지연금 등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는 지난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금촌통일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파주시사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에는 공공임대 및 선임대후매도 사업 물량을 확대해 농지 공급을 늘리고, 영농경력 2년 요건에 따른 지원 면적 한도를 폐지하며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또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농지소유자가 농업인일 경우 기존 2.5%였던 수수료를 면제해 부담을 줄였으며, 신청자가 농업인일 경우 공고 없이 임차인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파주시사에 따르면 올해 공공임대농지 매입비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38%, 선임대후매도사업 예산은 328% 확대되어 농업인 지원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홍성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청년농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2026년에도 사업 예산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